

저점 탈출과 동시에 급상승 DW, ERP 대폭 성장

지난해 침체를 보였던 국내 데이터베이스(DB) 산업이 경기 회복과 더불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데이터 웨어하우스(DW)와 전자적자원관리(ERP)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시장도 본격적인 기지개를 펴고 있다. 아울러 지식관리시스템 시장도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상반기 DB관련 시장 동향과 관련 전문가를 통해 현 시장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살펴봤다. <글/박민식 기자>

연평균 12% 증가

최근 IDC코리아가 국내 IT시장이 2002년까지 연평균 12%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가운데 국내 주요 IT업체들의 올 1/4분기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10%이상 늘어났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 소프트웨어업체들 가운데 한국오라클이 21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ERP로 대표되는 SAP코리아도 지난해 1/4분기 매출이 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억원의 성장을 보였다. 또한 한국SAS도 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억원의 매출 성장을 보였다.

이밖에 국내 S/W산업의 대표주자인 삼성SDS는 1/4분기에 2,270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동기 대비 80억원 가량 증가했고 LG-EDS시스템은 900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33% 매출

이 증가했다.

또한 IDC코리아는 'The Korea IT 500'이라는 리포트에서 500대 기업 중 35.2%인 176개 기업이 올해 IT예산을 대폭 늘렸으며 49.8%인 249개 업체가 지난해 수준으로 지출할 것이라 응답했다고 제시했다.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은 '99년 상반기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ERP, DW 구축 등이 활기를 띠면서 고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시기였다고 지적했다.

IT기술의 통합 추진

상반기 매출 증가와 더불어 IT업계의 관심은 IT기술의 연계 및 통합으로 특히 DW와 ERP 통합을 선두로 전자상거래, 지식관리시스템이 연계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는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시스템 연동에 대한 고려없이 ERP와 그룹웨어는 물론 EC,

DW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별도로 구축해왔다. 그 결과 기업들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졌으며 당초 목표와 달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그다지 높일 수 없었다"고 하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인터넷은 급성장했으며 기업간 전자상거래가 기업경영의 근간을 이루기 시작했다. 따라서 기업들은 더 이상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을 늦출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통합 기술을 가장 빠르게 도입하는 곳은 대기업계열 제조 업체들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전자 등이 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국내외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업장에서 서로 다르게 개발된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ERP 시스템과 통합하는 1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LG전자는 최근 주요 공장과 영업, 물류 부문에 구축한 7개의 서버

를 오라클의 ERP와 DW에 기반해 통합하는 작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0여개 서버를 모두 통합하는 프로젝트도 준비중에 있다.

아울러 현대전자는 현재 1단계 완료한 ERP와 DW를 통합 운용하는 계획을 수립해 하반기 중 본격 추진키로 하고 최근 전담팀 구성과 솔루션 공급업체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이밖에 삼성전자, 삼성전관 등도 각종 애플리케이션에서 보내온 데이터를 한 곳에서 집중 관리하는 데이터 마트를 이용해 전자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시장별 현황

데이터 웨어하우스

지난해 DB산업의 이슈였던 DW가 올 상반기에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다수의 IT업체들이 DW에 투자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단지 시장 선점을 위한 솔루션 출시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한해를 보냈다”고 지적하면서 “'99년은 DW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시장이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1천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들어 DW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금융권으로 은행, 보험, 증권 등 전 분야에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올해 초 동부화재가 한국 NCR와 30억원 규모의 테라데이터를 도입했고, 조흥은행을 비롯해 현대해상, 교보생명, 현대증권, LG증권 등도 DW를 구축 중이거나 곧 구축할 예

정이다. 아울러 삼성생명, 삼성카드, 신영증권, 한국은행 등도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통신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유무선통신 사업자 모두가 DW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통신이 전사적 DW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신세기통신, SK텔레콤, LG텔레콤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도 DW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제조업 부문에서는 포스코, 현대전자 등이 DW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이나 각종 공공기관도 DW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DW 관련 정보교류 단체인 DW SIG가 최근 소속된 233개 업체 중 상당수가 1~2년 안으로 DW를 구축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 하반기 시장은 더욱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DW시장이 이처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를 선점하기 위한 정보기술(IT) 업체들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오라클(대표 강병제)이 자사의 차세대 DBMS인 오라클 8i를 본격 출시하면서 DW의 시장 확대를 위해 그 동안 별개 제품으로 판매해 온 온라인분석처리(OLAP) 툴을 번들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으며, 한국인포믹스(대표 김광원)는 본사차원에서 DW업체인 레드브릭을 인수하면서 DW분야에서는 기존 인포믹스 제품을, 데이터 마트 시장에서는 레드브릭 제품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이베이스(대표 김지문)

도 DW전용 DBMS ‘어댑티브서버 IQ12’를 출시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대표 김재민)는 지난해 말 OLAP를 내장한 DBMS ‘SQL서버 7.0’출시를 기반으로 윈도우NT 기반의 DW시장 공략을 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IBM(대표 신재철)이 자체 DBMS에 다양한 솔루션을 묶어낸 DW패키지를, 한국HP(대표 최준근)가 ‘오픈 웨어하우스’라는 DW패키지를 각각 출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전자상거래

최근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전자상거래의 성공적인 활용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쇼핑물 위주로 연평균 100% 이상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EDI서비스 매출과 주요 쇼핑물 운영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정할 때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지난해 465억원에서 올해 980억원, 내년 2,160억원, 2001년 4,950억원, 2002년 9,210억원, 2003년에는 1조 7,150억원 규모로 전망됐다.

이같이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면서 EC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IT업계는 관련 솔루션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업체들간 전략적 제휴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주요 경쟁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e-비즈니스를 주창하는 한국IBM을 비롯해 한국HP,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 한국컴팩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오라클, 한국인포믹스 등 거

의 모든 IT업체들이다. 특히 이들 외국 업체는 본사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광고관측과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EC에 초점을 둔 기업이 이미 변신을 꾀하고 있다.

한국IBM은 지난해부터 'e-비즈니스'라는 모토아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면서 EC와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모두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올초 새롭게 구성된 통합마케팅팀을 주축으로 광고와 각종 이벤트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관련 협력업체를 크게 늘리고 있다. 또한 EC에 적합한 고성능 유닉스서버인 'RS/6000 H70' 등 하드웨어를 선보이면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대표 이상현)는 자사의 전자상거래 비전인 '.com'을 통해 기업간은 물론 개인들도 인터넷상에서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관련 제품과 기술, 서비스 등을 총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com' 홍보를 위해 케이블TV, 옥외광고 등을 통한 판촉활동은 물론 각종 세미나와 이벤트 등을 연계해 인지도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EC시장에 다양한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오라클, 싸이버텍홀딩스, 아이커머스코리아 등 국내외 솔루션 전문업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HP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사 차원에서 ERP 전문업체와 제휴를 맺어 'E서비스'를 구현하는 미들웨어 개발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HP는 첨단 인터넷관련 기술

및 솔루션 개발 방침에 따라 최근 본사 차원에서 'E 서비스 전략 발표회'를 개최하고 자바 기반의 전자상거래 통합 솔루션인 '프레몬트'를 공식 발표했다.

한국컴팩컴퓨터(대표 강성욱)는 자사의 강점인 웹기반 전자대금 결제를 위한 지불 솔루션을 선보이는 등 EC 사업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대표 김재민)도 인터넷시장에 뒤늦게 진출하면서 EC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지만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강력한 업체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한국오라클(대표 강병제)의 경우 EC와 연동되는 미들웨어 제품을 내세워 세계 유력 IT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EC시장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전사적 자원관리

최근 가트너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우리 나라 ERP시장 규모를 패키지만 따지더라도 1천억원에 달하며 도입 업체도 300여개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시장규모가 연간 40%씩 가파르게 성장해 2002년에는 컨설팅과 패키지를 합쳐서 2,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RP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관련 업계 관계자는 "ERP가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구조조정의 효율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동안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던 ERP 도입이 중소기업과 통신, 유통, 제약, 금융 등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

했다.

현재 국내 ERP시장은 외국업체들이 8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중인 가운데 최근 들어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들의 속속 참여하면서 춘추 전국 시대를 맞고 있다.

ERP업계의 선두주자로 대표되는 SAP코리아(대표 최해원)는 지난해 2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30%를 웃도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가운데, 비록 한국통신 구축사이트를 오라클에게 내주었지만 포항제철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 핵심 ERP에 뉴디멘션으로 불리는 공급망관리, 고객관리, EC 분야를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다 강력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DB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오라클은 하나로통신과 풀무원같은 중견기업, 코카콜라, GE메디칼, 미세린 등 다국적기업의 한국지사들을 고객으로 확보한 상태이다. 또한 올해 사활을 걸고 한국SAP과의 전쟁을 펼쳐 130억원 규모의 한국통신의 ERP 시스템을 현대정보기술, 앤더슨컨설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하였다.

이 회사의 지난해 ERP분야 매출은 1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300억원의 목표를 세워놓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인터넷기반의 ERP 솔루션과 기업내 프로세스를 벗어나 모든 공급업체와 판매망까지 연결하는 확장형ERP를 통해 시장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바안(BAAN)은 지난해 영업에선 침체된 모습을 보이면서 50억원대의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는 LG산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중장비 제조업체를 집중 공략하여 하반기까지는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SSA코리아는 지난해 삼양제너스와 선진사료 등을 새고객으로 확보하면서 50억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는 업종별로 시장공략에 박차를 가하면서 특히 식품가공, 제약, 자동차부품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한국IBM, 한국능률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한 중견기업을 위한 저가형 ERP 패키지로 가격 때문에 한국오라클, SAP코리아 등의 솔루션을 도입하지 못한 사이트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한편 영림원, 지엔텍, 삼성SDS 등 주요 국내 개발업체들도 한국적인 기업환경에 적합한 ERP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국내 시장 공략과 별도로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다국어 버전 ERP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영림원은 전체 직원 37명 중 30명을 개발인력에 투입할 정도로 개발에만 집중해 기술력으로 외산 ERP와 정면 대응하고 있다. 영림원은 다른 ERP 업체와 달리 영업과 컨설팅을 협력사에 완전히 맡기고 있다. 올해초 효과적인 시장 공략을 위해 삼성컨설팅 등 협력업체를 약 10개로 늘렸으며 향후에도 채널강화를 통해 시장에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지엔텍은 풍부한 ERP 모델링 노하우를 강점으로 중소 ERP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른 시스템과 연동이 쉽다는 장점을 내세워 영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삼성SDS는 국산 업체 중 가장 늦게 ERP 시장에 진입했지만 지난해만도 30여곳의 고객사에 자사 제품을 공급해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는 60여개의 사이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SDS의 ERP 시스템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중견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영업을 전개해 시장점유율을 지난해에 비해 2배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지식관리시스템

지난해 인식 확산에 주력한 지식관리 시장이 올해 들어 새로운 솔루션의 출시와 국내 SI업체들의 참여로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한국인포믹스, 피씨닥스필크럼, 로터스 등이 레퍼런스 사이트를 확보하기 위해 수요 공략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신개념의 KM 솔루션을 잇따라 선보이는 등 활로 모색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KMS 동향은 ERP, DW등 기업의 핵심 업무 애플리케이션을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재배치하고 통합하는 인프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이 지난해와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피씨닥스필크럼은 최근 KM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 전략 발표와 함께 신규 수요 발굴에 박차를 가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피씨닥스는 하반기 안에 인공지능을 대폭 보강해 자동분류, 자기학습 능력 등이 지원되는 통합KM(Integrated KM)이라는 개념을 구현한 신제품을 내놓

을 계획이다.

로터스는 최근 신제품인 노츠/도미노 5.0를 통해 KMS 기술 분야를 계속 리드한다는 전략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도 익스체인지의 차기 버전에 정보탐색과 XML 등 지식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부가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 중이다.

한편 삼성SDS, LG-EDS시스템, 현대정보기술, SK컴퓨터통신 등 주요 국내 SI업체들도 최근 사내외 정보기술(IT) 노하우 및 정보를 DB화한 사내 KMS를 구축,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는 한편 대외 KMS 구축사업에 나서고 있다.

LG-EDS시스템은 올해초 지식경영 최고책임자제를 도입, KMS를 활용한 지식경영 역량 극대화를 하고 있으며 지식경영을 위한 지식관리센터에 12명의 전담인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삼성SDS는 자체 개발한 지식관리 솔루션인 KWave로 사내 KMS 구축을 완료하고 대외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고 있다. KWave는 그 동안 아리샘 등의 운영에서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조직 내외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밖에 현대정보기술은 올해 자체 개발한 ‘플러스닥(PlusDoc)’을 활용해 사내 KMS 구축을 완료했고, SK컴퓨터통신은 SK&C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KMS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고 있다. 